

농인의 언어적 권리의 제도적 보장과 그 과제

리츠메이칸대학 생존학연구센터 **곽정란** / 연락처: kwak0806@gmail.com (번역 곽정란)

1. 배경과 목적

배경: 2003년 한국 국회에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 「수화기본법안」, 「한국수어법안」,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안」이 제출되었다.

특징: 농인사회를 중심으로 조속한 입법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수화의 「언어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화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명칭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법안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준비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도 「수화언어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비교의 관점에서 일본의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일본수화」와 「일본어대응수화(수지일본어 라고도 불린다)」의 구별을 둘러싼 논의를 검토, ②일본의 수화언어법에서 수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확인, ③이를 둘러싼 언설(인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일본수화」와 「일본어대응수화」의 구별을 둘러싼 논의

◆일본수화에 대한 인지

1995년 농인과 청인이 함께 결성한 「디프로」라는 조직의 리더적인 존재인 기무라 하루미와 이찌다 야스히로에 의한 「농문화선언」의 발표 이후, 일본수화에 대한 인지가 확장되었다.

“농인은 일본수화를 일본어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자이다(기무라·이찌다1995→2000:8) ”

디프로는 「일본수화」를 「일본어와 다른 언어체계를 가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일본어대응수화를 「일본수화의 단어를 빌려 일본어의 언어구조에 맞춰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 구별하였다(기무라2011:16, 20).

◆농아동의 「인권구제신청」

2003년 5월 27일, 전국 각지의 농아동과 그 부모 107명이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

구제신청의 개요는 「**일본수화로 교육을 받고 싶다, 「일본수화를 할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해 달라**」라는 것이었다(코지마·전국 농아동을 둔 부모회 편2004:3)。

이 구제신청에 대해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산하단체를 두고 있는 일본 최대의 농인 당사자 단체인 전일본농아인연맹(全日本聾啞連盟 이하, 일본농아인연맹)이 이견을 표명, 농아인연맹의 견해를 지지하는 서명을 모집했다(와키나카2009:57-60).

◆일본농아인연맹의 「인권구제신청에 대한 견해」의 일부

· 언어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구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농인의 커뮤니케이션인 수화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안이하게 이분할 수 없습니다.
· 수화를 농인의 현실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분리하여, 추상적·이념적 정의에 끼여 맞추어 버리는 사고방식은 농인의 현실을 분리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농인을 분열시키는 우려를 안고 있다. 만일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우열을 논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면, 거꾸로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연맹은 전국의 농학교에 더 넓은 의미의 수화 도입과 아동 학생간의 수화에 의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실현시키는 것이 현 시점의 전국 공통의 목표가 된다고 여겨집니다(재단법인전일본농아인연맹 2003년 10월 17일, 와키나카 2009:57-8).

◆ 「일본수화」와 「일본어대응수화」에 대해서는 그 구별과 호칭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있으며, 그 논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3. 수화언어법의 위치와 정의

◆배경 : ①장애인권리조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의 필요성
②개정장애인기본법에 근거한 법 정비 ③농교육에서 수화를 언어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재단법인전일본농아인연맹2012 : 2-5)

◆수화언어법을 둘러싼 흐름

- 2011년, 일본농아인연맹을 중심으로 「수화언어법 (가칭) 제정추진사업」 시작
- 2012년4월9일, 일본농아인연맹 홈페이지에 수화언어법안을 게재
- 2013년10월, 돗토리현(鳥取県) 수화언어조례를 가결
- 2014년3월24일, 미에현 마츠사카시(三重県 松阪市) 「손과 손으로 하트를 잇는 수화조례」를 가결
- 2014년6월20일, 사가현 우에시노(佐賀県 嬉野市) 「마음의 가교 수화언어조례」를 가결
- 2014년9월19일, 홋카이도 시카오이초(北海道 鹿追町) 「수화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가결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화언어법 (가칭) 포럼·수화언어법 이벤트를 개최 중. 팸플릿, 보고서 등을 제작·선전. [일본농아인연맹] <http://www.jfd.or.jp/sg>

◆수화언어법의 주요 대상은 농인이다.
(* 「정보·커뮤니케이션법 (가칭)」)

◆수화언어법을 통해, 「수화」를 「언어」로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
수화를 획득하다, 수화로 배우다, 수화를 배우다, 수화를 사용하다, 수화를 지키다(재단법인전일본농아인연맹2012 : 5).

◆수화언어법의 구성과 정의

구성 : 총칙, 수화언어의 획득 및 습득, 수화 사용, 수화통역제도, 수화심의회 등, 그 외 기타.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일본수화언어 (이하 「수화」라고 칭함) 를 일본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지하고, 가지고 있는 농인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 외 모든 장에서 수화를 사용해 생활을 영위해 수화로 풍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수화 획득, 습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수화에 관한 모든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일본수화언어」란, **일본 농인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언어체계를 가진 언어를 가리키며,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 및 지적이며 풍성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언어활동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같은 책 : 12)

농인의 정의나 「일본어대응수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2012년, 「정보·커뮤니케이션법(가칭)」의 골격에 관한 제언을 발표.
「정보·커뮤니케이션법 (가칭)」의 대상자【 2 . 정의 (1)】이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이란, 청각, 시각, 음성기능 등의 신체장애 (맹농인을 포함함),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포함함), 난병 그 외 심신의 기능장애, 또는 이러한 것이 중복으로 있는 장애 (이하 「장애」로 총칭한다) 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 말하기, 듣기, 보기, 쓰기, 읽기, 인지 곤란, 음성이나 문자 등에 의한 정보 접근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커뮤니케이션수단을 선택할 수 없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2/01/27판 [일본농아인연맹] <http://www.jfd.or.jp/2012/01/18/pid786>

4. 수화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

◆ 「좌담회 농인의 문화·언어의 자리매김」에서

“3.11대지진 참사 이후 총무부 장관의 담화에 수화통역이 제공되어도 그 통역을 본 실제로 **일본수화를 모어로 하는 사람은 웬지 잘 모르겠다, 이해하려면 그 통역을 머리 속에서 한번 더 번역 안 하면 알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있었던 말이죠(사사키 2012 : 294) ”.

“언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언어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추상적인 기술로 되어 있어요. (중략)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화언어법의 수화 정의는 농인이 표현하고 있는 언어라고 기술하게 될 것 같은데요. 수상의 기자회견에 수화통역이 있었지만, 그 통역을 보고도 의미를 알 수 없다, **수화를 봐도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략) **그럴 때 무엇을 지적해야 하나면, 통역을 잘 못한다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스에모리 2012 : 295-296) ”.

「**일본어와 일본수화가 섞인 수지일본어가 「수화」로 인식되어, 그 때문에 수화로서 문법을 지닌 농인의 수화 (일본수화) 는 주목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수화언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부야 2012 : 336)

5. 맺으며

일본의 수화언어조례를 둘러싼 움직임은 수화언어법 제정을 향한 발판이 되고 있다. 또, 수화언어법 제정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법 (가칭)」을 둘러싼 실천은 언어권의 개념을 확장시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모드를 가진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일본의 수화언어법 제정을 향한 실천 과정은 「일본수화」와 「일본어대응수화」의 차이와 이를 둘러싼 논의를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농인커뮤니티가 내포하고 있는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차이를 차이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들리지 않거나 듣기 어려운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내재하는 수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마주 할 필요가 있다. **수화언어법 제정이라는 결과 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보다 열린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참고문헌(히라가나순, 일본어 제목은 일본어판 참조)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이찌다 야스히로(市田泰弘) 1995→2000 「농문화선언」현대사상편집부 편2000 「농문화」세이도샤 : 8-17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2011 「일본수화와 일본어대응수화 (수지일본어)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세이카츠서원 ◆코지마 이사무(小島勇)·전국 농아동을 둔 부모회(全国ろう児をもつ親の会) 편2004 「농교육과 언어권」아카시서점 ◆재단법인전일본농아인연맹(財団法人全日本聾啞連盟)2012 「수화언어법 (가칭) 제정 추진사업」보고서
◆시부야 토모코(渋谷智子)2012 「바이모달·바이링구얼리즘」『말과 사회』14 : 330-338 ◆히사마츠 미츠지(久松三二)·카와시마 키요시(川島清)·스에모리 아키오(末森明夫)·타나카 신야(田中慎也)·사사키 미치코(佐々木倫子)2012 「간담회 농인의 문화·언어의 자리매김」사사키 미치코 편 「농인에서 본 「다문화공생」」코코출판 : 286-314 ◆와키나카 키요코(脇中起余子) 2009 「청각장애 교육 지금까지와 지금부터」키타오-지서방